

열등감·질투... ‘맨 끝줄 소년’이 쓴 문학적 스릴러

“글쓰기로 풀어낸 서스펜스
밀도 있는 구성과 심리전”
스페인 희곡 원작 6부작
최민식·최현욱 호흡 호평

“애정보다 질투가 먼저였다면 그 관계에도 친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만년 적 없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움에 젖을 수 있을까.”

학생들의 과제에 ‘쓰레기’라는 흑평을 쏟아내던 교수는 우연히 한 학생의 재능에 매료된다. 이 학생은 교수의 수업 내용 오류도 대변하게 지적하고, 과제에 ‘다음에 계속...’이라고 금급증을 남겨두는 때 흑적인 글도 써낸다. 교수는 “재능은 귀한 것”이라고 학생에게 은밀한 개인 수업을 제안한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맨 끝줄 소년’은 실패한 작가이자 국문학과 교수인 허문오(최민식 분)가 강의실 맨 끝줄에 앉은 학생 이강(최현욱)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의 글에 집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스페인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 쓴 동명 희곡이 원작이다. 작가를 꿈꾸던 고교 문학 교사 헤르만과 위험한 욕망을 가진 소년 클라우디오의 이야기는 단 한 편의 소설을 낸 후 더 이상 작품을 쓰지 못하는 대학교수 허문오와 속을 알 수 없는 공대생 이강의 서사로 변화했다.



‘맨 끝줄 소년’ 최민식(왼쪽), 최현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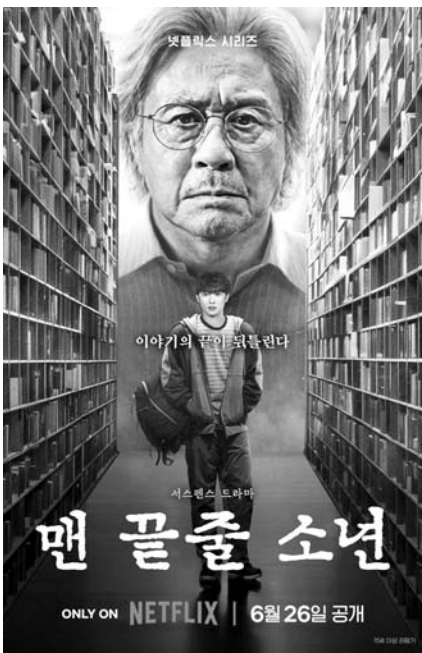
이강이 쓰는 글은 친구 김세운(이진우)의 삶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한다. 허문오는 “일부러 훑쳐보고 엿듣고 그걸 탐닉하는 순간 다 관음이야”라고 이강을 꾸짖는다. 글 속 인물이 자신에게 평생의 콤플렉스를 안긴 유명 작가 김수훈(허준호)이란 사실을 알기 전까진, 김수훈은 허문오의 대학 동기가자, 그가 일반적으로 미워하고 선망한 인물이다. 6부작인 ‘맨 끝줄 소년’은 김수훈을 향한 열패감으로 뿔뿔 뗜진 허문오의 지질한 심리가 증폭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이강의 재능을 키워주겠다던 허문오는 글이 전개될수록 사적 복수심을 투영한다. 심지어 “증거 우리가 만들면 돼. 그게 네가 쓰는 글의

마지막 엔딩이야”라고 거짓을 강요하고, 결국 질투와 열등감이 뒤엉킨 추악한 폭주로 파멸을 자초한다.

이 작품은 글쓰기 자체가 서스펜스가 된 심리 스릴러다. 보통의 스릴러가 범인의 정체나 사건의 진실로 긴장감을 조성한다면, 이 작품은 이강이 매번 새로운 과제를 제출하고 허문오가 이를 보고 반응하는 과정이 몰입감을 만들어낸다. 글을 쓰고 읽는 행위가 사람의 심리를 헤집으며 문학적 스릴러의 독특한 향취를 풍긴다.

차분한 긴장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액자식 구성이다. 현실의 이야기와 이강의 글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최민식과 최현욱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규급테 감독 특유의 연출과 적재적소에 사용된 음악이 흡인력을 만든다.



‘맨 끝줄 소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의 연출과 적재적소에 사용된 음악이 흡인력을 만든다.

극을 이끄는 최민식과 최현욱의 앙상블은 뻔하지 않은 구도로 흥미를 자극한다. 최민식은 해묵은 열등감으로 제자의 손에 휘둘리는 지식인의 위태로운 내면을 촘촘하게 그려낸다. 최현욱은 순진한 듯하면서도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운 청년의 얼굴로 불같은 최민식에게 밀리지 않는 서늘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맨 끝줄 소년’은 누군가의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파고든다.

김호중 “뉘우치며 더 돌아보겠다”

지난달 30일 가석방... 팬 카페에 친필 편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달 30일 가석방된 가수 김호중이 “옥문을 벗어났다는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감을 갖고 뉘우치며 잔여 형기를 채워나 가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호중은 이날 오후 팬 카페에 올린 ‘그리운 식구들에게’라는 제목의 친필 편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가 지 2년이 걸렸다”며 “또 느낀다.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됐고, 6월 30일 오늘 세상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



지난달 30일 가수 김호중이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가석방 심사 통과로 김호중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고,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교도소를 떠났다.

김호중은 “말보다는 지금 저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며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 잡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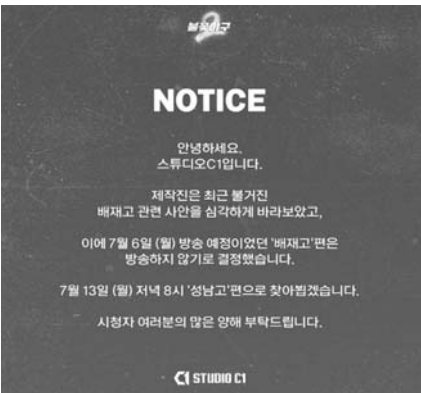
불꽃야구, 배재고편 취소 “사안 심각하게 봐”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불꽃 파이터즈와 배재고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가 최근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지역 비하로 해석되는 구호를 외친 논란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꽃야구2’ 제작사 스튜디오시원(CI)은 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배재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재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6일 콘텐츠를 공개하지 않고 13일 오후 8시 성남고 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진은 경기 내용을 편집한 방송분을 스튜디오시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



‘불꽃야구2’ 공지. 스튜디오시원 제공

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양궁왕전 경기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는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자”거나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구호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연 ‘탱크 데이’ 판매 촉진 행사를 연상시키는 조롱성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기타 권 김건모... 10년 만에 신곡 ‘어디쯤 가고 있을까’

가수 전영 곡 리메이크
“자전적 고백 담겨 있다”

가수 김건모가 1일 오후 6시 10년만의 신곡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발표했다. 김건모가 신곡을 내놓는 것은 지난 2016년 데뷔 25주년 기념 앨범 ‘50’ 이후 처음이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는 가수 전영이 지난 1977년 발표한 1집 타이틀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다. 김건모

는 원곡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악기 구성으로 편곡해 자신의 담백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김건모는 특히 대중에게 익숙한 피아노 대신 처음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했다.

소속사는 “이 곡은 김건모가 긴 시간 홀로 기타 연습에 매진하며 수없이 불러왔던 노래”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여 온 지난 시간의 자전적 고백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원곡자인 작곡가 이현섭과 작사가 이경미 부부는 김건모의 리메이크에 “뜻밖의 선물 같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김건모는 “처음으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한 곡인 만큼, 많은 분에게 ‘새로운 김건모’를 보여주는 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등을 도는 전국투어 콘서트로 6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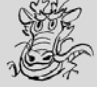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건음기획 제공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5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4: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벨기에·세네갈 7: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8: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미국·보스니아 11:3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셀북(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4방울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꾸러기 탐구생활 11:00 말하는 몸	8:50 꼬마법사 주니토니 9:20 처음 배우는 시 11:05 세계테마기행 13:25 EBS 평생학교 15:50 마사의 꿈 16:40 최고다! 호기심 따지 17:10 페다 피그 18:50 PD로그 21:55 왔다 내 손주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파니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열린채널 15:20 인생이 영화(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20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재) 15:00 KBS 월드컵 뉴스 15:15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12:00 12 MBC 뉴스 12: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특집 안코르 다류 기억의 다리를 잇다 13:25 뽀빠! 좋아! 좋아! 스페셜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의 경제 17:10 안코르 MBC 다큐프라임	12:00 SBS 12 뉴스 12:45 배미연 시즌4 13:00 건강한가요(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와이즈 정보쇼 알고보면 16:30 테이스티스페셜(재)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여행에 진심	9:00 KCTV 9시 뉴스 9: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00 KCTV 11시 뉴스 11:30 탐나는 보이스 12:30 소리원정대 13:30 KCTV시정대 세상 15:30 어촌별곡 16:00 삼촌 명심합서에 17:20 지금 이순간 19:30 도래불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여행기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훈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신상출시 펀스트랑 21:55 월간 투 수군스쿨 23:05 내내 내게 여자야 2(재)	18:05 테마기행 길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시사기획 이슈 있다 22:00 구해줘! 홈즈 스페셜 23:50 MBC 뉴스 25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한타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지식 방송 프로젝트 합숙 맞선 2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TBN제주교통 FM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일
	36년 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48년 연로한 어른에게는 안부인사로 격정을 덜어라. 60년 새로운 모임 또는 나를 리더로 필요로 하며 재정적 지원도 요청한다. 72년 사업에 자금이 지출되고 투쟁할 일이 생겨 고민한다. 84년 활발한 추진력과 활동을 하게 된다.
	37년 상대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조절을 잘하라. 49년 함께 일을 하거나 남을 도울 일이 생긴다. 61년 신경이 예민해지고 대항하려 한다. 부부간 논쟁 주의. 73년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남과의 비교는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86년 상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의존이나 의타심을 갖지마라.
	38년 주변과 화합하면 안되는 일도 가능해진다. 50년 아침에 우울함이 늦게까지 가니 웃음과 기쁨을 만들면 좋다. 62년 부모님 또는 처 때문에 일거리는 늘어나고 분주하다. 74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었으나 기대치에는 부족함이 있다. 86년 이성교제 또는 모임이 있다. 적극 참여하라.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39년 친구나 동료에게 신변에 이상이 와 병문안. 51년 자금지출이나 손재수가 우려된다. 문단속 철저. 63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어나 생산에 하자를 만드니 조심. 75년 과욕은 불만족을 일태하는 과몰입이다. 현실에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다. 87년 취업 또는 자취생이 있다면 서두르면 불리하니 신중함을 가져라.
	40년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일이 풀린다. 이랬사람과 상의도 필요하다. 52년 불만이 때론 다가와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 64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근심도 있다. 76년 업무과중으로 피로를 느낀다. 도와주고 구설을 받을 수 있으니 언행 주의. 88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활동도 나의 목표이다.
	41년 주위에 친한 사람 신변이상으로 병문안 할 일이 생긴다. 53년 돈 문제로 신경을 쓰거나 다툼이 있다. 65년 문서관련 문제가 발생하니 보존주의. 77년 상사와의 관계를 잘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온다. 89년 기대하지 않던 소식이 있다. 소개팅이나 약속이 생긴다.